

2023학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3.1. 3.(화) 14:00 ~ 15:05
- 장 소 :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
- 안 건 : 2023학년도 대학 등록금 책정
- 참석자 :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9명 중 9명 참석
 - 위원장 - 학생처장 김남수
 - 위 원 - 기획예산부처장 이상노, 교수 박용진, 재무과장 김명숙,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양 건, 공대 학생회장 김민석, 상과대학 학생회장 박지석,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이현옥, 전북은행 전북대지점장 여종열
 - 간 사 - 기획과 재정기획팀장 백유선, 학생과 학생팀장 송완상
 - 서 기 - 기획과 김선웅

□ 회의 안건

- 2023학년도 학부 등록금, 대학원 입학금·등록금,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미수강신청 학사학위취득(졸업)유예자 등록금, 전공진로설계 미이수자 등록금, 기타사항 등

□ 회의 내용

간사 (성원보고) 위원 9명 중 9명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

위원장 2023학년도 등록금심의회위원회 개최 선언 [개회 : 2023.1.3. 14:00]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방법 소개)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위원장의 표결권 유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우리대학 변호사에 자문한 결과,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는 등심위 규정 설명

위원들 각자 간단 소개

- 위원장 본 안건 심의에 앞서서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및 현황, 전년도 심의 결과, 등록금 책정 고려사항에 대해서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
- 간사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및 현황, 전년도 심의 결과, 등록금 책정 고려 사항 설명)
- 위원장 질의사항이 있는지 물음
- 일반대학원 평균등록금이 거점국립대학 4위가 맞는지 물음
- 간사 맞다고 답변
- 위원장 추가 질의사항이 없으면 본 회의의 심의안건 소개
- 심의안건 -
1. 학부 등록금 책정(안)
 2.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
 3.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책정(안)
 4. 미수강신청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등록금 책정(안)
 5. 전공진로설계 미이수자 등록금 책정(안)
 6. 2023학년도 개별 학과 등록금 책정(안)
- 1~5안건까지는 기획예산부처장과 학생위원이 4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하였고, 양자 간 절충방안들을 마련하였다고 설명
- 안건중에 첫 번째 안건인 **학부 등록금 책정(안)**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안건설명을 요청
- 간사 [1. 학부 등록금 책정(안) : 동결]
- 최초 제시안은 수업료Ⅰ 동결, 수업료Ⅱ 4.05% 인상하는 것이었음
- 현행 제도하에서 평균등록금 인상될 경우 국가장학금Ⅱ유형 참여가 배제 되는데 22년 기준 국가장학금 Ⅱ유형 교부액은 23억 이었음
- 수업료Ⅱ 4.05%를 인상하게 된다면 학생 1인당 등록금은 5만2천원에서 17만원 정도 한 학기당 인상이 될 예정이고, 21년도 결산기준 4.05%를 인상했을 때에는 총21억9천9백만원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 사전 4차에 걸쳐서 기획예산부처장과 학생위원이 회의를 하여 학부등록금은 동결하는 것으로 최종 조율하였다고 설명
- 위원장 학부 등록금 동결에 관한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지 물음
- 14년 동안 학부 수업료가 동결되었고 올해도 동결이지만 언젠가는 인상이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데 총학생회도 학교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주기를 요청

위원장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지 물음

○○○ 학생회에서도 지방거점국립대학의 재정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등록금을 인상하게 된다면 전북대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 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에게서 금액을 인상하는 것보다 대학재정구조가 바뀌어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이 아닌 국가에서 대학에 예산을 더 줘야 된다는 의견

위원장 1. 학부 등록금 책정(안)은 위원들 전원 찬성으로 동결하기로 가결함

위원장 두 번째 안건인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안건설명 요청

간사 [2.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 : 입학금·수업료Ⅰ 동결, 수업료Ⅱ 4.05% 인상]
반값등록금의 시행 등을 감안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Ⅰ은 동결, 수업료Ⅱ는 4.05% 인상을 제안함

참고로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평균등록금 인상시 참여가 배제되지만 대학원 등록금의 인상 여부는 반영하지 않음 수업료Ⅱ를 4.05% 인상하였을 때 6억4천4백만원의 세입증가가 예상되고 타 거점국립대의 '23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 현황은 대부분 인상 쪽으로 추진 중이었다고 설명

전북대학교는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학회계에서 대학원생에게 지원하고 있는 수혜금액이 적게 보이는 이유는 전일제 미취업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파트 타임이라도 근무하게 되면 수혜대상에서 제외 되어서 인원이 적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

위원장 대학원 입학금 및 수업료Ⅰ은 동결, 수업료Ⅱ는 4.05% 인상에 관한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지 물음

○○○ 대학원 등록금 수업료Ⅱ 4.05%인상을 하면 향후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했던 이 분들에게 장학금이 어느 정도 더 지급이 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대학원 장학금 재원 구성에 보면 BK지원 사업이 있는데 우리 학과 같은 경우에는 BK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국문학과는 23명의 학생 중에 수혜인원이 1명이고 사학과도 11명인데 수혜인원이 2명이고 영어영문학과는 12명인데 수혜인원이 1명임

학과가 BK사업에 선정되거나 개인교수님들이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데도 있는 반면 어떤 학과는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선명하게 보인다고 설명

BK사업이나 교수님들이 하는 프로젝트는 언제나 선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인상이 된 만큼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 또 주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되돌려주는 형태가 돼야 선순환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의견

대학원 수업료Ⅱ를 4.05% 인상을 반대는 하지 않지만 그 4.05%에 맞는 대학원생들의 장학금도 나가야 된다는 의견

○○○ 대학본부에서 반값 등록금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우리 대학이 연구중심대학으로 간다고 표방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우리 대학원 등록금이 타 대학에 비해서 비싸다는 의견이 있었고 일차적으로 등록금을 내려서 현재 대학원 TO를 다 못 채우고 있는데 대학원 TO를 채운 후에 중장기 비전을 가지고 예산을 늘린 만큼 투자를 해보자해서 결정되었다고 설명

대학원 수업료Ⅱ를 4.05% 인상한 만큼 대학원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짜야 된다는 의견이고 국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원 강사들이 많아서 못 드렸는데 일단 모든 전일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

위원장 지금 대학원 반값등록금은 미취업 전일제 대학원생들은 반값등록금을 하고 있다고 설명

○○○ 이 단계에서 좀 더 발전시켜서 2명있는데 전일제 반값을 주지 말고 한명을 전액을 달라는 의견도 있다는 설명

○○○ 학교 공대 같은 경우 교수님이 받는 연구비를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주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

○○○ 그것은 없어졌다고 답변

○○○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개인 교수가 학교에서 연구비 받은 것을 학생들에게 돌려주거나 BK사업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내는 등록금만큼 학생들도 그만큼 정당하게 받아야 된다는 의견

교수님들의 연구비는 올해는 있고 내년에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학부생들처럼 대학원학생들도 기본적으로 가는 것이 있어야 대학원이 더 활성화가 되고 대학원학생들이 더 오고 이 학과도 BK사업에 선정되고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

위원장 학교에 요구할 때 대학원생이 목소리를 내면 좋겠다는 의견

대학원생 지도를 하다보면 이과라서 논문을 쓰기위해 실험실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로부터 실험실습에 관해서 돈을 받는 것이 없고 학부들은 실

협실습비예산으로 하는데 대학원생들은 그러한 것이 없다고 설명

대학원생입장에서는 등록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교수가 알아서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실험실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불합리하다는 의견

이런 부분은 학교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대학원생은 총학생회 같은 기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의견

그래서 다음 집행부가 꾸러지면 이러한 협의를 하시는게 좋겠다는 의견

○○○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대학원 실험실습비를 배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1억4천 정도 증액이 될 예정이라고 설명

○○○ 저도 실험실에서 졸업논문을 쓰고 있는 입장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비는 BK사업에서 선정되어서 재정적 어려움 없이 하고 있는데 후배나 선배들을 보면 연구를 해야 졸업을 할 수 있고 박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특정 수준의 논문을 몇편이상 써야 졸업장을 주는데 연구를 할 때 연구비를 100% 교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

실험실에 출근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출근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저희과에 신임교수 한 분이 오셨는데 연구비 압박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수 같은 경우도 연구실적을 내려면 학부생보다 대학원생이 있어야 실적이 나와서 대학원생을 모집하는데 학부생들이 상담을 하러오면 장학금을 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면 확답을 주지 못해서 학생들이 대학원 진학에 어려움이 많음

전북대가 다른 학교에 비해 등록금이 비싼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제 주변에 많고 교수님들도 연구비나 사업비를 따올 100% 확신이 없기 때문에 대학원생이 많이 힘들어함

등록금을 올려서 1.4억을 증액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1/n이 되다보면 굉장히 작은 돈이고 물론 학교 입장에서는 학부생들이 인원이 가장 많고 중요하지만 연구중심대학을 위해서는 대학원생들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써주셔서 등록금 낸 것들이 학생들이 연구를 하거나 졸업을 하는데 선순환적인 구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명하게 예산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위원장 부학생회장이 예산심의 할 때 학생 몫으로 배정된 것은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라고 요청

위원장 2.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은 위원들 전원 찬성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Ⅰ은 동결, 수업료Ⅱ는 4.05% 인상을 가결함.

위원장 세 번째 안건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책정(안)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안건설

명을 요청

간사 [3.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책정(안) : 내국인 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

총학생회에서 외국인 등록금 인하를 요청하였고 전북대학교가 거점국립대학교 중에서도 등록금 수준이 최상위라서 등록금 인하를 해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게 필요하다는 의견

대학본부에서는 내국인 인상률을 외국인 인상률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학부는 동결, 대학원은 입학금 및 수업료 I 은 동결하고 수업료 II는 4.05% 인상(안)으로 제안함

대부분 타 거점국립대의 현황은 학부는 동결, 대학원은 인상 추진 예정

그리고 외국인 관련 부서 예산이 타 거점국립대 대비 전북대학교가 월등히 높아서 상대적으로 외국인 학생에 대한 지원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

위원장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책정에 관한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지 물음

○○○ 총학생회에 외국인 등록금에 대한 유학생들 민원이 들어왔는데 1차적인 민원은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이 타 지방 거점국립대학교와 비교해서 굉장히 비쌌다는 점이었는데 기획처와 사전회의에서 논의 결과 외국인 1인당 예산이 타거점국립대에 비해서 높아서 외국인 학부등록금은 동결로 허상

다만,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을 늘리거나 전북대학교 홈페이지나 오아시스 시스템이 잘 관리되고 있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 문화교류도 좋지만은 이런 예산은 수강신청이나 오아시스 같은 기본적인 프로그램에 써야 된다고 생각

간사 학생회와 4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였고 회의결과 학부는 동결, 대학원은 입학금 및 수업료 I 은 동결하고 수업료 II는 4.05% 인상으로 조율을 함

학생회 측에서 외국인 유학생에게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고 그 부분은 국제협력처에 저희가 2023회계연도에 1,8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논의를 했다고 설명

○○○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인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학부의 등록금을 못 올리니까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인상하는 거라고 설명

이 방법이 가장 좋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는 의견

또 간사님께서 국제 쪽에서 얼마를 줬다고 하면 외국인 학부생은 동결이기 때문에 그 돈은 외국인 대학원생에게 써야 된다는 의견 왜냐하면 그들에게 더 거둬들인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은 반드시 학부생들을 위해 쓰지 말고 대

학원생들을 위해 쓰라는 의견

본국으로 들어가는 학생도 있지만 여기 남아 있는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에서 가장 취업하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한국어를 하나, 안하나라는 것이 중요

실험실에서는 교수님들과 영어로 할 수 있지만 학생이 회사에 들어가면 한국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

위원장 그 나라가서 학위를 받고 공부를 했는데 그 나라 언어를 못하면 학위를 준 대학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

우리나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한글도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 대학원 등록금이 인상된 만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른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주실 것을 요청

위원장 3.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책정(안)**은 위원들 전원 찬성으로 학부는 동결, 대학원 입학금 및 수업료Ⅰ은 동결하고 수업료Ⅱ는 4.05% 인상을 가결함.

위원장 네 번째 안건인 **미수강신청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등록금 책정(안)**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안건설명을 요청

간사 [4. **미수강신청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등록금 책정(안) : 계열별 수업료Ⅱ의 6.5%**]
총학생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조율이 되었는데 최초에는 총학생회에서 등록금 면제를 요청해주셨고 본부에서는 수업료Ⅱ의 6.5%로 현행 유지를 제안

미수강신청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등록금 같은 경우는 3천4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조율을 할 때 학사학위취득유예자에게 예산지원을 해서 해당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생회와 학생처가 협의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 2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종 조율

참고로 타 거점국립대학의 미수강신청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등록금 현황은 제주대는 면제이고 타 거점국립대는 8%~10% 안팎으로 책정하여 우리 대학이 징수하고 있는 대학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

위원장 미수강신청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등록금에 관한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지 물음

위원장 미수강신청 학사학위취득유예자도 학생신분을 유지하는데 최소한의 금액은 들지 않느냐 휴학을 하지 않고 학생이기 때문에 이 분들도 도서관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오히려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내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

위원장 4. 미수강신청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등록금 책정(안)은 위원들 전원 찬성으로 동결 현행유지(계열별 수업료Ⅱ의 6.5%)로 가결함.

위원장 다섯 번째 안건인 전공진로설계 재이수자 등록금 책정(안)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안건설명을 요청

간사 [5. 전공진로설계 재이수자 등록금 책정]

교무과에서 전공진로설계 재이수시 0.5학점이 발생하는데 이 0.5학점에 대해서 별도 등록금 책정기준이 없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책정할지 등록금심의 위원회에 요청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는 1학점부터 3학점까지, 4학점부터 6학점까지, 7학점부터 9학점까지 각각 1/6, 1/3, 1/2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 0.5학점을 어떻게 책정을 해야 할지 내부 논의를 해본 결과 0.5학점을 반올림해서 1학점으로 간주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만약 전공진로설계 단일과목만 재이수하여 0.5학점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1학점으로 간주를 해서 한 학기의 수업료Ⅱ의 1/6을 납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

○○○ 총학생회와도 의견을 나누었는데 전공진로설계가 새로운 정권에서 어떻게 될지가 불투명하다는 점과 두 번째로 미수강신청 학사학위취득유예자와 다른 점이 전공진로설계는 학점으로 학점 충족이 안되었는데 학생들이 이것을 가지고 학사를 유예하는 제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설명

미수강신청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학점을 다 취득한 상태에서 유예한 상태인데 전공진로설계는 이것을 수강을 안 함으로써 졸업을 미루는 형태로 되어있음

전공진로설계가 6학기인데 6학기 중 5개 학기만 해도 졸업이 가능한데 학생들이 대부분 보면 2~3학기를 안 받은 형태이고 이런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불성실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1학점으로 해서 이러한 것을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였다고 설명

○○○ 전공진로설계는 기본적으로 상담과목인데 교수님들과 저희가 상담을 하고 어떠한 활동을 하고 오아시스에 입력하는 과목인데 이것을 1학점으로 처리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학문을 배우는 것처럼 21만원을 주고 한다는게 조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

학생들이 졸업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은 사실인데 졸업유예자 등록금보다는

비싸야 하나 계열별 수업료Ⅱ의 1/6보다는 저렴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

○○○ 그것도 생각을 해보았는데 현재 등록금 규칙이 1학점부터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0.5학점 예외사항을 만들어서 적용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전공진로설계하고 다른 학점을 미이수 했을 때 1.5학점, 3.5학점들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올릴지 내릴지 문제도 있는데 전공진로설계 과목의 존폐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정해놓고 만약 올해에 등심위를 다시 하시면 그때 가서 정하면 되는데 이게 없어진다면 별 의미도 없는 내용이라는 설명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정해 놓고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이 어쨌냐는 의견

위원장 전공진로과목설계 자체가 처음 설계되고 난 이후로 의견이 분분한데 다음 집행부에서 이 과목을 유지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 이것은 이대로 통과를 시키고 다음 집행부에서 전공진로설계 과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그 때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자는 제안

○○○ 3월 달에 0.5학점 때문에 학비를 내는 학생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민원의 소지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은 이것을 정확히 인지를 하셔서 다음 집행부의 전공진로설계 과목 존폐 결정에 따라 의견을 제시해야한다고 요청

위원장 학생들에게 전공진로설계 미이수 관련 문제로 학생처 및 담당교수가 학생에게 연락을 계속 시도하였지만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서 힘들다고 설명

그리고 이 부분을 악용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0.5학점을 1학점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집행부에서 논의 할 수 있는 기획이 있다면 논의해주시기를 부탁한다는 의견

위원장 5. 전공진로설계 재이수자 등록금 책정(안)은 위원들 전원 찬성으로 계열별 수업료Ⅱ의 1/6(등록금 책정시 1학점으로 간주)로 결정하는데 다만 전공진로설계 과목의 존폐에 따라 2학기에 재논의한다로 가결함.

위원장 여섯 번째 안건인 2023학년도 개별 학과 등록금 책정(안)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안건설명을 설명 요청

간사 [6. 2023학년도 개별 학과 등록금 책정(안) : 현행유지]

가. (학부) 수학과 등록금 책정

학과에서는 현행 인문계열 수준 등록금을 자연과학계열 수준으로 순차적으로 조정을 요청

수학과 같은 경우는 학과 모집계열이 자연과학계열인데 실험실습이 없기 때문에 수학교육과와 같은 인문사회계열 등록금으로 징수를 하고 있었는데 학과에서는 자연과학계열 기준으로 상향 요청

나. (학부) 지구환경과학과 등록금 책정

지구환경과학과는 자연계열 학과인데 자연계열 등록금을 받고 있는데 자연계열 등록금보다 더 높여 달라는 요청

대학본부 측에서는 현행 유지로 안을 마련하였는데 그 이유는 평균등록금이 인상이 될 경우 국가장학금 II유형 참여 배제가 되기 때문에 대학본부 차원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움

○○○ 현재 들어온 내용은 2개 학과 밖에 없는데 각 대학에서 예산을 올려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는 상황이지만 아시다시피 국가장학금 II유형 참여가 배제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2개 학과만 신청한 것이라는 설명

위원장 학과별로 등록금을 14년간 동결하였기 때문에 과별로 이의를 제기하는 과들이 많아지는데 이것을 하나 들어줘가지고 인상을 해버리면 국가 I, II유형 장학금이 있는데 I 유형은 원칙대로 하는 것이고 II유형은 저희가 하는 제도에 따라서 약간 변동을 줄 수 있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이 매년 보면 27억 받았다가 29억 받았다가 작년에 23억 받아서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지난번에 전국 학생처장 회의에 가서는 한국장학재단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각 대학별로 등록금 인상을 하고자 하는 대학들이 있고 현 정부에서는 그 인상안을 용인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

거점국립대학 총장협의회에서는 너무나 오랫동안 못 올려서 생기는 재정적 압박감이 있으니 좀 올리면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서 올리는 쪽으로 이야기 하는 것도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

수학과와 지구환경과학과의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전체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의견

위원장 6. 2022학년도 개별 학과 등록금 책정(안)은 수학과, 지구환경과학과 등록금은 현행 유지로 가결함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폐회를 선포함 (폐회 15:05)

기록자 : 기획과 행정7급 김 선 응

□ 2023학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등록금 책정 결과

○ 학부 등록금 : 동결

○ 대학원 입학금 : 동결

대학원 등록금 : 수업료 I 동결, 수업료 II 4.05%인상

○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 학부 동결, 대학원 입학금 동결, 수업료 I 동결,
수업료 II 4.05%인상

○ 미수강신청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등록금 책정 : 동결(수업료 II의 6.5%)

○ 전공진로설계 재이수자 등록금 책정 : 계열별 수업료 II의 1/6로 책정(등록금 책정시
1학점으로 간주), 다만 전공진로설계의 존폐
에 따라 2학기에 재논의

○ 2023학년도 개별 학과 등록금 책정

- 수학과 등록금 책정 : 현행 유지(인문계열 수준)

- 지구환경과학과 등록금 책정 : 현행 유지